

사회

목마른 광주·전남 단비

주초 또 장마전선... 가뭄 해갈 기대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 단비가 내렸다. 이번 장마전선은 2일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밤늦게부터 6일까지 다시 영향을 주면서 해갈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내린 비는 지리산 피아골 65mm를 최고로...

수출은 비가 내리기 직전 도내 저수율은 43%였으나 이날 현재 41.3%로 비가 온 뒤 오히려 낮아지는 등 가뭄 해갈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4대호(장성·나주·담양·광주)의 평균 저수율은 37.8%까지 떨어지던 지난 해(65%)와 평년(58.1%)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태다. 반면 동두천 117mm, 수원 100.5mm, 인천 90.4mm, 서울 89.5mm 등 80~110mm 사이의 비가 내린 중부지역은 해갈됐다. 하지만 전남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가족 한마음 축제

'2012 가족공감 한마음 축제'가 지난달 30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열렸다. 다문화가족 등 각 자치구에서 참가한 700여명의 가족들이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 고교 배정방식 '오락가락'

시교육청, 先지원 학교도 後 지원 가능... 석달만에 또 바뀌

광주시교육청이 현재 중학교 3학년년부터 적용되는 고교 배정방식 변경을 강행했다가 석 달만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고입추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선(先)지원한 학교도 후(後)지원에서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 내용을 수정, 재공고하기로 했다. 수정안의 골자는 시교육청이 지난 3월말 공고를 통해 선지원한 학교 2곳은 후지원에서는 지원 못하도록 묶어 놓은 것을 풀어주는 내용이다. 고교 2곳을 선지원하고, 후기 5개 고교에서도 그 학교 2곳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애초에 선지원한 학교에서 정원의 40%를 뽑는 것을 인정하면 특정 사립고를 중심으로 인기학

교에 우수학생이 편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선지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원치 않는 학교에 강제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수가 애초 예상과 달리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정 학생이 거주지 바로 앞에 있는 고교를 두고 먼 곳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중학교 내신(성적) 9등급으로 나눠 학교별로 학생들을 배정하는 내용은 유지했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은 "교육청이 각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교배정안 변경을 강행했다가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졸속추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미

래가 걸린 현안인 만큼 원점에서 배정방식 변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정·공고한 고교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는 것은 아니며, 학부모와 교사들이 수정을 요구해와 검토를 거쳐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졸속추진이라는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3학년도 고교배정 방식>=학생들이 지원희망 고교를 원서로 쓰고, 추천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것은 기존과 같다. 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눠 각 고교별로 고루 배치하는 '평준화 방식'을 도입한 것이 다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8월말 차기 총장 선출

16~20일 후보 등록

8개월여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오던 조선대가 새 총장을 뽑는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마지막 직선제여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조선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20일까지 총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서류심사 격인 총장자격을 심사하는 거쳐 교직원·학생·동창회 등의 직접선거를 거쳐 1, 2위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

사회는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총장으로 임명한다. 선거는 8월 21일에서 28일 사이에 치러질 전망이다. 출마 예상 후보(가나다순)로 강동원(58·차대 보철과), 김하림(56·외대 중국어문화), 박용현(58·법대 글로벌법학과), 서재홍(63·외대 병리학과), 임동운(59·외대 약리학), 조병욱(64·공대 화학공학) 교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총경급 인사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한재숙 완도서장을 광주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안병갑 광주 서부서장을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김홍근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을 광주 서부서장으로 발령하는 등 총경급 241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3일자로 단행했다. <영단 18면> 또 전남지방경찰청 경우과장에는

박병동 나주서장이, 정보통신담당관에는 이윤 장성서장, 수사과장에는 황호선 영광서장, 정보과장에는 김원국 목포서장, 보안과장에는 강철원 담양서장, 목포과장에는 임광문 전남지방청 수사과장이 각각 발령됐다. 한편 조현오 전 청장에게 대한 '형량 파동'으로 파면됐던 채수창 전 서울 감북서장이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 치안지도관에 발령돼 현직에 복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광주 21/29°C, 목포 20/27°C, 여수 21/29°C, 완도 21/27°C, 구례 21/30°C, 강진 21/28°C, 해남 21/28°C, 장흥 21/28°C, 순천 21/30°C, 영광 21/30°C, 진도 20/27°C, 전주 21/30°C, 군산 21/30°C, 남원 20/30°C, 옥산 20/25°C. Includes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화물연대 파업 종료... 전남 일부선 물류 차질. 화물연대가 5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지만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물류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컨테이너 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제시한 운송료 인상 최종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받아 찬성률 67%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광양항의 경우 파업 첫날인 지난달 25일 1700TEU에 불과했던 광양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지난 30일 5800TEU로 급증했고, 1일에도 3000 TEU 이상 처리되는 등 주말과 휴일에도 불구하고 처리량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할인 봉사 OFF SALE 30%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Includes phone numbers for various branches and a list of participating brands.

롯데제이티비, 여행 문의 1577-6511, 무안출발 북경, 동남아, 방콕/파타야, 대양주, 미주/캐나다. A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Travel services, listing various travel packages, destinations, and prices.

대표전화 1577-6511 | 광주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안, 북구점, 기아점, 무등점, 문화전당점, 서광주점, 매월점 | 전남점: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